



## 벤처의 역사를 담어주는 우리벤처



### 사사연 [www.sasayeon.com](http://www.sasayeon.com)

2001년 11월부터 기업 사사 발간만을 전문으로 해 온 사사편찬 전문회사.

기업의 경영사와 기업문화를 객관적이고 입체적으로 기술하며 외형적으로도 사사편찬의 새로운 트렌드를 제시하는 것으로 유명하다. 올바른 사사편찬을 위한 업무 프로세스와 창조적인 가치 구현 체계, 고객만족 서비스 체계를 구축해 최고 수준의 사사 편찬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한 기업의 역사가 여타 기업과 동일할 수 없듯이 한 기업의 사사는 유일해야 한다는 생각으로,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해당 기업의 특성과 문화에 부합된 내용과 형식, 창조적인 가치 구현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 유니다스 [www.unidocs.co.kr](http://www.unidocs.co.kr)

유니다스는 웹 브라우저를 통해 실제 책을 보듯 친숙한 환경을 구현하면서도 PDF의 다양한 기능을 추가한 전자책 제작솔루션 'ezPDF Webbook Maker'를 개발했다.

이것은 웹북으로 생성하고자 하는 전자문서 또는 종이문서를 PDF로 변환한 후 'ezPDF Webbook Maker'에 등록하면 온라인으로 서비스가 가능한 형태의 전자책이 생성된다.

'ezPDF Webbook Maker'는 PDF의 장점을 그대로 살려 책갈피정보를 웹북의 목차정보로 자동 생성이 가능하고, 전문 검색 기능도 포함시켰다. 검색어가 눈에 잘 띄게 하이라이트를 적용했으며 저해상도와 고해상도 인쇄가 가능하다.

최종사용자는 별도의 프로그램을 설치할 필요 없이 웹 브라우저에서 열람이 가능하다.



### 휴먼드림 [www.humandream.com](http://www.humandream.com)

1999년 'Photo-realistic 3D 동영상 생성 엔진'으로 정보통신부 주관 우수신기술 업체로 선정되었다. 이듬해 해외 시장에 진출하면서 동영상 프로그램 관련 연구와 개발을 계속해왔다. 2003년 통합 콘텐츠 제작/관리 서비스인 "ZIPOT"을 런칭하고 디지털 북 제작 사업에 본격적으로 뛰어들었다. '컨텐츠에 대한 사용자의 선호도 분석 기술 특허'를 보유하고 있으며 2003년 엔청와대에 전자책 제작시스템을 납품했다. 같은 해 일본지사를 설립, 해외에도 영업망을 넓히고 있으며 중소기업진흥공단, 현대자동차, LG전자 등의 전자카탈로그를 구축했다. 링크나 플래시 기능은 기본이며 동영상, 음향도 탑재하며 3D까지 병행하고있다. 이 프로그램을 이용하면 인쇄에 소요되는 비용을 절감하고 온라인상에서 사본나 역사 관련 자료를 열람, 검색할 수 있다.

최근 E-book은 종이책을 웹으로 옮기는 수준을 넘어 기존 시스템 관리 영역에 혁신을 창출하는 단계에 이르는 것이다.



## 온·오프라인 어디서나 가능한 기업 역사관 운영

한 기업의 역사적 자료를 DB로 구축한다는 것은 상당한 노력과 시간이 필요한 작업이다. 기업의 역사를 정리하는 사서편찬 작업은 오히려 사료 DB구축 작업의 한 과정에 불과할 수도 있다. 따라서 사서편찬이 한 권의 책을 발간하기 위한 작업이라면 사료 DB구축 작업은 기업의 모든 사료를 체계적으로 분류하고 입체적으로 구성하여 기업정보 자료로서의 활용가치를 부여하는 작업이라고 할 수 있다. 사료 정리는 기획에서부터 데이터 사료 정리, 사진 사료정리, 문서 사료정리 그리고 백서나 사전 전시회 개최 등의 업무로 진행된다. 특히 사료 구축 과정에 대한 모든 문서 및 결과를 정리한 백서를 발간하는 것도 잊지말아야 할 과정이다.

### Off Line 역사관

기업은 대중보다 앞서 변화를 감지하고 이것을 기업의 브랜드로 재창조해야 할 의무를 갖고 있다. 이러한 기업의 자발적인 변화 의지는 곧 신뢰로 연계되고, 이것은 바로 기업의 미래를 밝히는 척도가 될 것이다. 기업 역사관은 지나간 기업 역사를 정리하고, 이를 미래를 지향하는 초석으로 삼아 기업의 위상을 부각시키고, 기업의 사회 문화적 기능을 재창조한다는 데에 그 의미가 있다. 무엇보다도 기업의 역사가 담긴 각종 유물을 훼손되지 않도록 잘 보존하고, 기업의 성장 모습과 역사를 더 체계적으로 정리해 많은 사람들이 함께 보고 느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역사관을 건립하는 것이다. 특히 기업 역사관은 새로운 기업 기록문화의 창달이라는 총체적 결과물로 자리매김할 수 있다.

벤처를 시작할 때의 생각을 적은 노트, 창립멤버들의 기록, 실패한 도면 등 기업을 이루는 단계에서 만들어진 모든 것들이 사료가 될 수 있다.

### On Line 역사관

Off Line 역사관은 이미 생명력을 잃은 사료(물건)들을,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유혹하는 대상으로 되살려 내는 작업으로부터 시작된다. 이에 더불어 보다 많은 정보와 지식을 보다 많은 사람들이 공유할 수 있는 On Line 역사관을 구축할 수도 있다. 단순히 사서편찬 작업의 결과물을 웹상에 게시하는 e-사사, CD-Rom에 재구성하는 Media 사사의 개념에서 확대된 것으로 블로그나 미니홈피를 통해 회사의 사료를 모아가는 것으로 시작할 수 있다.

앞서 말했듯 기업의 역사는 우리나라 산업의 역사이다. 또한 한 벤처 기업의 역사는 우리나라 산업을 지탱하는 중소기업의 역사다. 몇 년 혹은 수십 년이 지날수록 그 값어치를 더해가는 역사. 기술개발과 매출 모두 중요하지만 이제 우리 회사의 역사적인 자료와 그 보관에 대해 한번쯤 생각해 봐야 할 때다.

